정보

개요

곡명 : `Symphony No. 3 "Liturgique"` (H. 186)
작곡가 : Arthur Honegger (1892–1955)
작곡 시기 : 1945–1946년
초연 : 1946년 8월 17일 , Zürich, Charles Munch 지휘
성격 : 로마 가톨릭 전례문에서 가져온 제목을 붙인 세 악장 관현악 교향곡이다 . 성악 없이 전쟁의 폭력 , 깊은 탄식 , 평화를 향한 간구를 차례로 펼친다 .

- **IMSLP:** Symphony No. 3, H. 186
- **Wikipedia:** Symphony No. 3 (Honegger)

Arthur Honegger의 `Symphony No. 3 "Liturgique"`는 세 악장에 `Dies irae`, `De profundis clamavi`, `Dona nobis pacem`이라는 라틴어 제목과 `Allegro marcato`, `Adagio`, `Andante`라는 빠르기 표기를 배치한 교향곡이다 . 현재 다루는 작품은 이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전곡이며 , 전례문은 가창되는 가사가 아니라 각 악장이 다루는 역사적·윤리적 문제를 가리키는 표지로 작동한다 .

출판 정보와 초연

이 교향곡은 Pro Helvetia의 위촉으로 1945–1946년에 작곡되었고 , 1946년 Paris의 Salabert에서 초판이 나왔다 . Honegger 공식 작품 목록은 Salabert 판을 EAS 14695로 식별하며 , Eulenburg 문고판도 함께 기록한다 . 작품은 Charles Munch에게 헌정되었다 .

1946년 8월 17일 Zürich에서 열린 초연의 날짜와 도시 , 지휘자는 여러 자료에서 일치한다 . 다만 연주 악단은 자료의 귀속이 갈린다 .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의 공연 자료와 Honegger 관련 목록은 Suisse Romande Orchestra를 적고 , Wiener Symphoniker와 Zürich 관련 자료는 Tonhalle-Orchester Zürich를 적는다 . 이 차이와 관계없이 Munch의 지휘 아래 Zürich에서 처음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공통으로 확인된다 .

세 악장 제목은 레퀴엠과 미사의 전례 언어에서 왔다 . `Dies irae`는 레퀴엠의 “진노의 날 ”, `De profundis clamavi`는 시편 130편과 죽은 이를 위한 성무일도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 `Dona nobis pacem`은 미사 통상문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를 가리킨다 . 작품의 악보에는 라틴어를 부르는 성악 파트나 그레고리오 성가가 들어 있지 않으며 , 제목과 관현악이 전례문의 정서를 교향곡 안에서 변환한다 .

소요 시간

약 29분이다. Honegger 공식 목록은 28분 55초를, IMSLP는 평균 27분을, 여러 공연 기관은 약 30분을 제시한다. 지휘 속도와 녹음 ·판본에 따라 27–30분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편성

플루트 3(제 3주자 피콜로 겸주),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 F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탐탐, 트라이앵글 , 피아노, 현악기로 편성된다. 공식 작품 목록과 Cleveland Orchestra의 자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3.3.3.3 및 4.3.3.1의 관악 · 금관 구성이 전쟁 장면의 압력과 느린 악장의 긴 호흡을 모두 담당한다.

피아노는 독주 악기가 아니라 관현악 내부의 타격과 색채를 보태는 성부로 들어간다. 타악기는 행진의 무게와 충돌을 만들며, 플루트 ·피콜로 ·잉글리시 호른과 저음 금관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를 연상시키는 선율까지 담당한다. 이 교향곡에는 성악 독창과 합창이 편성되지 않는다.

전례문 제목과 전후의 구도

Liturgique 라는 제목은 종교 의식을 재현한다는 뜻보다 전쟁 직후의 경험을 전례 언어로 바라보는 방식에 가깝다.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의 프로그램은 Honegger가 Pro Helvetia의 위촉을 받아 이 작품을 썼으며, 비참함 ·행복 ·인간 사이의 드라마를 세 악장에 놓았다고 설명한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도 같은 흐름을 혼돈과 야만성, 불안과 탈진, 평화를 향한 요청으로 풀어낸다.

Cleveland Orchestra의 작품 해설은 Honegger가 현대인의 반응을 야만성, 어리석음, 고통, 기계적 사고, 관료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구상했다고 전한다. 그 해설에서 맹목적인 힘과 행복 ·평화 ·신성한 피난처를 향한 본능은 작품 전체에서 충돌한다. 세 악장의 전례문은 이 구도를 추상적인 종교 표어로 고정하지 않고, 폭력에서 탄식으로, 탄식에서 간구로 이동하는 관현악의 흐름에 연결한다.

I. Dies irae: Allegro marcato

첫 악장은 레퀴엠의 심판 문구를 각진 리듬, 넓은 도약, 불협화음이 섞인 행진으로 바꾼다. Cleveland Orchestra는 이 대목을 인간의 공포와 신의 분노가 겹치는 장면으로 설명하며, 관악과 타악이 만드는
맹목적인 힘이 전후의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해설한다.

악장 끝에는 플루트, 잉글리시 호른, 트롬본, 튜바 쪽에서 새를 연상시키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 새소리 같은 선율은 다음 악장의 탄식으로 넘어가는 연결점이자 , 폭력의 표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다른 가능성의 소리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은 이 악장을 혼돈과 야만성이 지배하는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II. De profundis clamavi: Adagio

시편 130편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를 제목으로 삼은 가장 긴 느린 악장이다. 낮은 음역과 긴 관악 독주, 어두운 현악의 호흡이 버림받은 인간의 탄식을 이어 간다. Cleveland Orchestra는 앞 악장에서 들린 새의 주제가 이 악장에 되돌아오며 재난 속 평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이 악장은 폭력의 직선적인 추진을 멈추고, 소리가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을 만든다. MusicWeb International 의 녹음 비평은 이 Adagio 를 엄숙한 캐논적인 춤으로 들으며, 아름다운 선율과 두려운 침입이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그 관찰은 느린 악장의 평온을 단순한 휴식으로 축소하지 않고, 탄식과 불안이 계속 교차하는 진행으로 이해하게 한다.

III. Dona nobis pacem: Andante

미사의 평화 응답을 제목으로 삼았지만, 시작은 고요한 합창이 아니라 거칠고 로봇 같은 행진과 절규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은 이 악장을 폭력에 맞서는 엄격한 행진과 찬가풍 종결부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군대식 리듬은 평화의 말을 압박하고, 그 압력이 무너진 뒤 현악의 아다지오적인 화음이 느린 호흡을 다시 연다.

종결부에서 플루트와 피콜로의 새소리 같은 선율이 현악 위로 떠오른다. Cleveland Orchestra는 이를 평화와 신성한 피난처를 향한 본능이 마지막까지 남는 모습으로 해설한다. Dona nobis pacem 의 평화는 완성된
승리의 신호보다, 폭력의 기억 속에서 계속 요청되는 문장으로 들린다.

관현악 음향과 전례 언어

Honegger는 전례문을 직접 가창시키지 않고, 제목이 불러오는 문장과 관현악의 재료를 충돌시킨다 . 첫
악장의 금관과 타악은 심판을 군사적 기계로 바꾸고, 둘째 악장의 관악 독주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가리킨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같은 군사적 압력이 평화의 응답을 밀어붙인 뒤, 현악과 고음 목관의 선율이
간구의 여백을 남긴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이 작품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라틴어 제목은 숨은 성악 선율의 출처가 아니라, 세 악장을 묶는 전례적 어휘다. Honegger 공식
자료와 Cleveland의 분석이 함께 보여 주는 것은 특정 성가의 인용보다 리듬, 음역, 관악 ·타악의 압력, 마지막 고음 선율이 전례 문구의 의미를 관현악적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공연과 레코딩 자료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의 공연 프로그램과 Cleveland Orchestra의 해설은 세 악장의 역사적 · 음향적 방향을 각각 구체화한다 . OSR 자료는 Munch 지휘의 Zürich 초연과 Pro Helvetia 위촉을 연결하고, Cleveland 자료는 첫 악장 끝의 새 선율과 마지막 악장의 플루트 ·피콜로를 같은 평화의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은 마지막 악장의 행진과 찬가풍 코다 사이의 대비를 실제 공연 해설의 언어로 설명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2014년 Forgotten Records 리뷰는 Honegger가 초연 직후 Decca 78회전 음반으로 첫 녹음을 지휘했다고 기록한다. 작곡가 자신의 해석이 남은 초기 녹음이라는 점에서 이 기록은 초연 이후의 수용을 살피는 역사 자료가 된다. 같은 리뷰는 1953년 Dresden Philharmonic Orchestra와 Walter Stoschek의 녹음에서 중앙 악장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고 아티큘레이션을 또렷하게 유지한 선택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MusicWeb International Naxos 8.555974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Takuo Yuasa 2002 Wellington Town Hall , Karajan Dutoit Yuasa . Yuasa , 1950 , 21 `Liturgique` .

- Arthur Honegger
- Cleveland Orchestra
-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
- American Symphony Orchestra
- Wiener Symphoniker Zürich
- MusicWeb International, Forgotten Records FR855
- MusicWeb International, Naxos 8.555974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8:58 UTC by
Updated 2026-10-04 10:08:58 UTC by